CNI세미나 2023-057

‘충남신남방교류회’
제3차 현장 견학 자료집

2023. 09. 19.

주최·주관 : 충남연구원

‘충남신남방교류회’
제3차 현장 견학 개최계획(안)

□ 세미나 개요

◦ 목적 : 충남 소재 대학 관계자와 대학에 재학 중인 이슬람문화권 유학생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한국생활에서 음식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대학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지원하는 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함

◦ 주제 : 이슬람 문화권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 발제 : 장수현 (건양대학교 이주민사회통합연구소 실장)

◦ 일시 : 2023. 9. 19.(화) 13:00 ~ 17:00

◦ 장소 : 건양대학교(논산)

◦ 참석 : 건양대학교 관계자, 유학생, 신남방교류회 회원 등

□ 일정계획

구분	시간(분)		내용
현장견학	14:00 - 15:00	60′	• 무슬림 관련 대학내 시설 참관
세미나	15:00 - 16:00	60′	• 대학관계자 및 유학생과 함께 하는 간담회 개최 - 사회 : 홍원표 박사 - 발제 : 장수현 실장
마무리	16:00 - 16:05	5′	• 마무리

이슬람 문화권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생활

건양대학교 이주민사회통합연구소 장수현

목차

1. 이슬람 문화 이해하기
2. 이슬람 문화권 외국인의 체류현황
3. 무슬림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생활
4. 질의응답(무슬림 유학생과 자유토론)

1. 이슬람 문화 이해하기

Q : 여러분은 이슬람 문화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1. 이슬람 문화 이해하기

“히잡은 죄가 없다 "

아랍어로 ‘가리다’ 의 뜻을 가진 히잡의 기원은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용도였지만, 이슬람 경전 꾸란이 “남성을 유혹하지 않기 위해 여성은 아름다운 곳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무슬림 여성의 의무가 됐다. 그러나 히잡은 여성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 종교적 자유이자 권리이다.

1. 이슬람 문화 이해하기

“할랄,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급부상 "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제품을 뜻한다. 음식 뿐 아니라 패션, 화장품, 의약품, 관광 및 물류 산업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에 대한 개념이 부각되면서 청결을 강조하는 할랄은 종교를 떠나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1. 이슬람 문화 이해하기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꾸란”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 전역으로 이슬람 열풍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서구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세력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기독교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 무슬림에 대한 적의심을 갖도록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1. 이슬람 문화 이해하기

“종교에는 어떠한 강요도 있을 수 없다”

이슬람의 전파는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이다. 그러나 ‘무력에 의한 이슬람 전파 ' 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꾸란에서 발견할 수 없다.

이슬람은 강제 개종과 무력보다는 공납제도 개선과 포용정책 등으로, 당시 수탈과 착취에 시달리던 서구의 피지배계층으로부터 환영 받았다.

1. 이슬람 문화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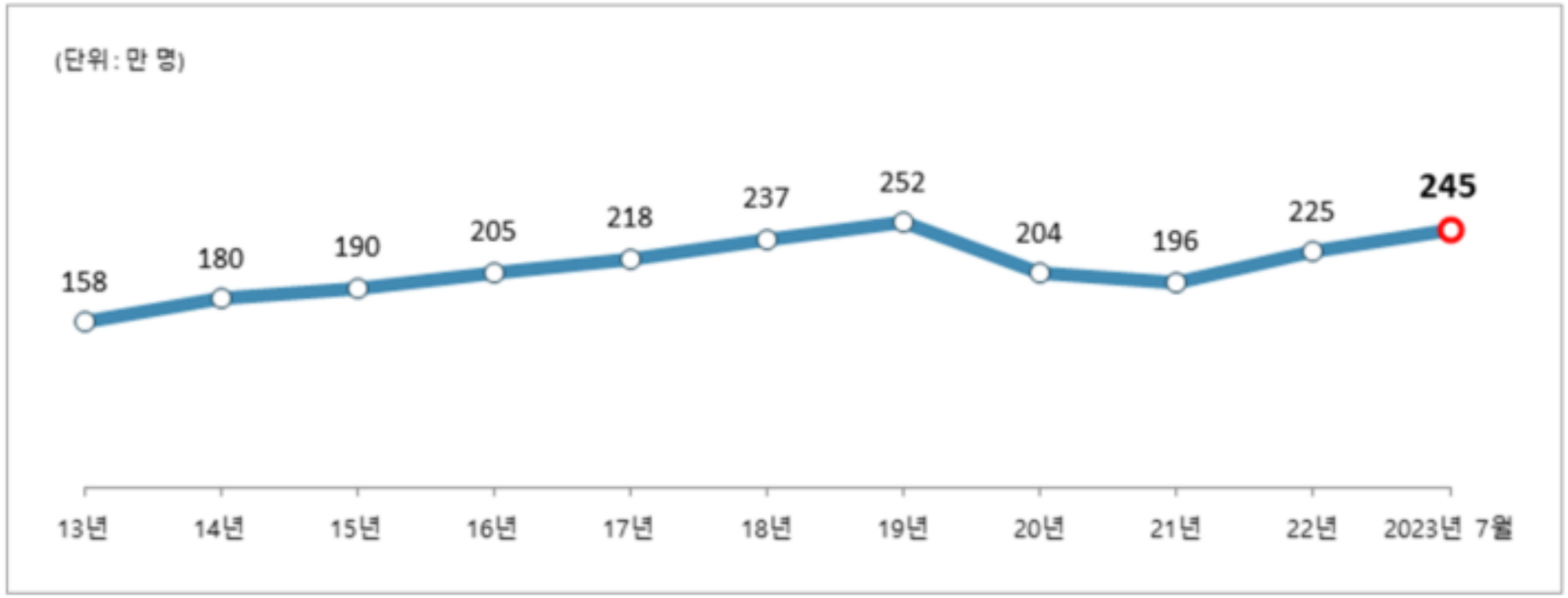
“한국 속의 작은(?) 이슬람”

지구촌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슬람, 한국에도 15만~20만 명의 무슬림이 체류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이슬람은 한국인에게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침해 ' 주장에도 한국은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지역사회의 이해와 규범 아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 이슬람 문화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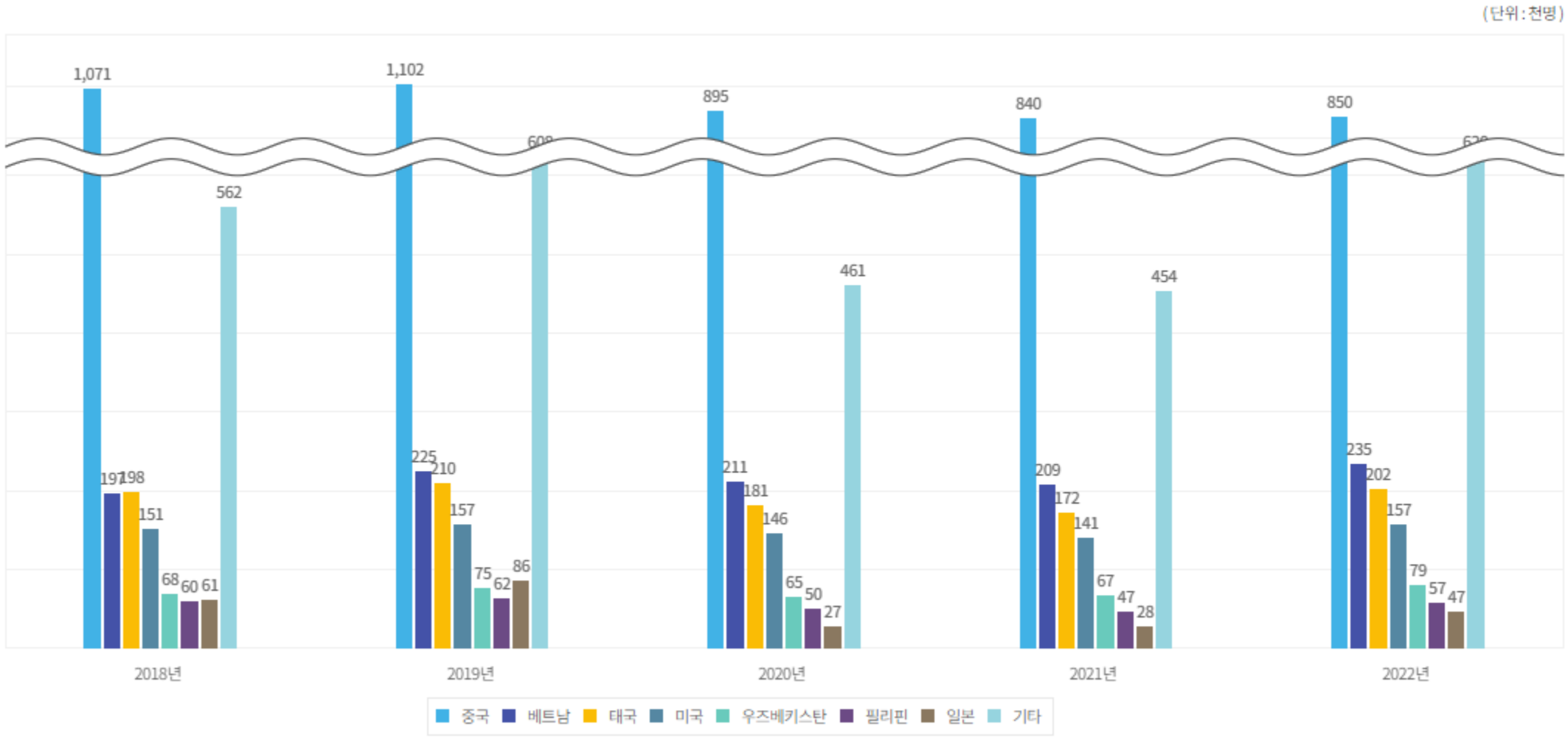
- 한국은 해방 이후 서구 중심적 사고의 영향으로 갖게 된 중동, 아랍, 이슬람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극복해야 한다.
- 다문화시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 이슬람 문화권의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배려와 상호문화주의적 태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2. 이슬람 문화권 외국인의 체류현황



2023**년 7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453,572**명으로 전월** 2,411,277**명보다** 1.8%(42,295**명**) **증가했다**.

2. 이슬람 문화권 외국인의 체류현황



2. 이슬람 문화권 외국인의 체류현황

- 체류외국인 중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37.6%(922,220**명**), **베트남** 10.8%(264,870**명**), **태국** 8.3%(202,726**명**), **미국** 7.0%(172,664**명**), **우즈베키스탄** 3.5%(84,875**명**) **등의 순이다**.
- **등록외국인(명)은 권역별로 수도권에** 728,203**명**(56.8%)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 243,535**명**(19.0%), **충청권** 153,936**명**(12.0%), **호남권** 108,392**명**(8.5%)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2. 이슬람 문화권 외국인의 체류현황

80년대 세계인구의 18%에 불과했던 이슬람인구는 2000년 23%, 2025년엔 31%를 차지, 기독교 인구를 능가할 전망이다.

3. 무슬림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생활

(단위: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내 유학생	160,671	180,131	153,361	163,699	197,234

- 연도별 유학생 현황('18~'22년) : 2022년 말 기준 국내 유학생은 197,234명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
- 2021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슬람 문화권역에 해당하는 이슬람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는 국가와 이슬람 교리를 통치하는 국가 그리고 국민 70%가 이슬람 신자로 이루어진 국 가에서 온 국내 체류 유학생 인구수의 총합은 16,550명으로 전체 15만 명대 유학생 인구에서 10%를 차지했다.

3. 무슬림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생활

“5~6년 내 국내 체류 이슬람인구 100만 명?”

김아영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장은 “한국에 체류하는 유학생, 주재원 등 무슬림들은 음식, 언어 등 한국 생활의 어려움이 많아 국내 정착하기보다는 본국으로 돌아가길 선호한다.”며 “국내 체류 무슬림 인구가 5~6년 내 100만명에 도달한다는 전망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3. 무슬림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생활

“기도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학”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정하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한국어 연수기관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기도실과 조리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무슬림 자비 유학생 유치를 위한 조건은 전무후무한 실정이다.

3. 무슬림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생활

“한국, 좋지만 불편한 나라”

- **K-푸드를 자랑하지만 무슬림은 먹을거리 앞에서 망설인다**

-학교식당의 주메뉴는 돼지고기, 분식점의 김밥에도 돼지고기를 이용한 햄이 빠지지 않는다. 물론 소고기와 닭고기도 제공되지만 할랄 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3. 무슬림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생활

- **한국은 술자리가 아니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

-학과 모임, 동아리의 뒷풀이, 선후배 모임 등 교내외 활동은 대부분 술자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무슬림 유학생은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여 제대로 된 소통의 기회를 갖기 어렵다.

3. 무슬림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생활

-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과 오해**

-히잡은 여성에 대한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 무슬림으로서 종교적 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며 착용 여부는 본인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다. 신체적 접촉, 노출 등을 꺼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단체 활동 등에서 사전 동의 없이 배제된 적이 있다.

3. 무슬림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생활

- **기타**

-모스크, 기도실 등을 찾기 어려워 종교 활동에 대한 제약을 받기도 한다.

-라마단과 같은 이슬람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무슬림 유학생을 위한 교수법이 개발되지 않아 수업 시 당황한 적이 있다.

4. 질의응답(무슬림 유학생과 자유토론)